

대학의 경제생활 공동체

대학 생활 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망

I. 글머리

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 식당이나 식당, 서점, 자판기등의 제반 복지시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에대해 자신있게 말할 경향은 아마도 드물 것이다.

84년 학원자율화조치이후로 제 1차 대학개혁의 대추운동에 대한 자기한계를 보완, 극복하기위해 학생복지위원회는 태어났다. 대학내복지는 지나친 정치투쟁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다시피한 학우들의 일상적 요구와 이해를 충족시켜야 하는 분야로 대두되면서 대학생활 전반을 담보해제된 복지위원회는 그 나름의 사업을 해 나아 갔다.

또한 최근 대학가에서 제반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체제와 잉여금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대두되면서 그 경향이 몇몇 관계있는 학우들에게서 다소나마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복지위원회 나름의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10년이라는 흐름동안 경회의 수월배우터는 울타리안에서 주인의식을 스스로 표기하고, 회원화된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안주했던 단일함에 대해서는 쓰라린 반성이 이어졌고 가슴깊은 고민이 이루어져왔음에도, 제자리라는 안타까움을 쉽게 지워버릴 수 없음을 선뜻 부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방판을 내세워 주체의식을 묻어 버렸던 지난 기억들을 이제 떨쳐버릴 때

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복지시설을 충실히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학원자율화의 토대이자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학협)의 시작인 것이다.

II. 대학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대학협은 학원자주와 학원공동체를 이룩하기위한 여러가지 활동 중 그 토대가 되거나, 그러한 활동을 담보하는 것으로, 특히 학원공동체건설에 발맞추어 그 생명력을 갖고 탄생되었다.

대학안에 만들어진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생활풍토를 고쳐 공동체생활과 서로 협동하는 생활을 지향해나가는 의식개혁운동이며

과 함께 소비조합이 갖는 개방성과 경제주의의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식개조운동으로서 생활문화운동의 전개라는 두가지 내용을 담은 대학안의 경제생활공동체라는 데 있다.

대학협의 역할은 첫째, 대학생활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향상이다. 대학생활과 문화는 특히 다양하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생명력을 부여받기때문이다. 대학협이 주장하는 공동체와 자주생활문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대학생활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올바른 협동생활, 우리 것에 대한 애정으로 이기와 퇴폐의 문화를 일소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구성원의 권익, 복지의 실현이다. 대학안에

서 필요한 여러 복지시설과 환경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는 구매공동사업, 학내복지시설을 확보하는 협동시설사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결합을 시도하는 농산물직판사업,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유도하는 생활문화운동, 각종문화행사개최, 자취·하숙살인, 여행추진등을 하는 문화복지사업, 대학인 서로간의 협동정신을 실제화할 수 있는 의료봉사사업, 가장 중요한 계몽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교육사업 등이 있다. 조합원은 이러한 대학협사업들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협은 또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향양과 조국해방투쟁에서 청년학도의 역할강화, 사회소비조합의 정착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결성되기 때문에 기타 여러 방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복지시설 직영화로 효율적 소비품토조성 수익금 학내구성원에 재환원 돼야

우리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조그마한 사업에도 애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협의 본질은 대학안에서 자본과 상업자본의 침탈을 막고, 학내 복지시설을 직영화하여 공동체와 분배, 자주경영을 이룩하고 그 수익금을 조합원 전체의 뜻에 따라 공공의 이해증진을 위해 투자한다는 소비조합의 이념

을 대학 구성원의 요구에 알맞게 개선·확장에 나감 것이며 우리모두가 그 일에 직접 참여, 운영해 나감으로써, 주체적으로 총괄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세계, 전제로 볼때 대학협은 우리모두가 일체감으로 서로를 위하여 민주적인 의사수렴으로 주어진 자원으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여러 권익들을 실현해 가는 마당이다.

대학협의 사업내용으로는 저

속, 협동적인 삶의 추구, 대학인의 권익보호, 생활공동체문화형성, 민족성존중운동, 독점자본의 배제, 대학의 자주·민주와 추진, 반전반핵평화운동추진,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III. 경희수원교정의 주변문화

경희수원배우터 주변은 좁은 길을 중심으로 술집과, 카페, 당

구장 등으로 단순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 주변에서 학우들의 소비형태(자취, 하숙포함)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높은가격으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학기초에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서 물가인상을 들어 불매운동을 벌여 어느정도 가격조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수입이 주변환경의 보수나 제투자의 여유 없이 상인들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는 일이다. 언젠가 어느 대학가에서 소비되는 것이 10억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올바른 대학현황에서 걸맞지 않게 학우들의 소비는 심각한 상태다.

학교안으로 눈을 돌려 구내 식당을 살펴보면, 메뉴, 잡화, 스프츠음료, 컴퓨터, 안경, 사진, 서점 등 적지않은 복지시설이 임대형태로 존재하여 외형상으로는 학우들의 소비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대관리와 학교적의 문

제점을 살펴보면, 실상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일례로 첫째, 학내 이윤의 외부유출과 소비주체인 학생들의 감동소, 합리적인 학원가격의 비절정, 소비자와 판매원의 분리로 인한 불신감이 발생하고 둘째, 현

상유지적인 운영 방식과 무사고적인 운영방식은 지속적인 향상의 관점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셋째, 수익금의 학내

재환원이 미약했음에도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방기된 점 넷째, 학원의 주인인 학우들의 수동적인 요구와 비주체적인 자세로 엄청난 시간과 힘의 소모 다섯째, 구조적으로 내재된 모순의 표출

인 서비스원들의 불친절 등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희서울교정의 식당직영화, 수원교정의 자판기직영사업의 폐쇄성을 들어 대학협으로 가는 학생적

영향에 대부분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어쩌보면 내부문화를 의식하다 숲을 보지 못하는 모습 들일 수밖에 없다.

용인에 자리한다는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 수원으로 상품구입처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소비 중심지로부터 벗어났다는 소외의식의 심화, 그리고 저변매와 방학이던 어두워지는 대학문화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현실이다. 가능한 학내구성원의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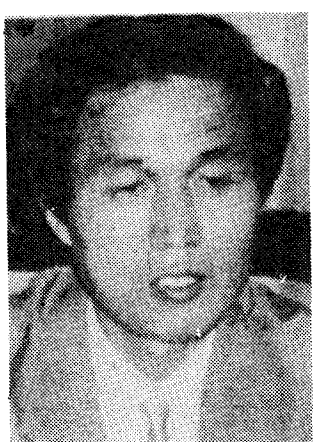
생활은 학내에서 만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수익금은 철저하게 학내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러한 때 지역의 고립성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일구어낼 수 있다. 이는 학교당국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살아있는 의식의 각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IV. 마무리글

지난 4월에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학내복지시설의 운영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전국적 지도력 강화에 주력”

이수호 집행위원장을 만나



“사상통일과 단결투쟁으로 민주정부수립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

강경대군 죽음이후 구성된 ‘강경대일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제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대대회)는 계속적인 투쟁사업과 장례일정등을 진행하면서 정권퇴진투쟁의 중심부로 자리잡아왔다.

민중들의 투쟁열기가 고양됨에 따라 대대회의는 기존의 단순한 가시적 투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안통제 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대대회의’로 명칭을 변경, 향후 정세주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22일 대대회의의 이수호 집행위원장을 만나 이후 구체적 일정과 투쟁목표를 알아 본다.

—기존 ‘강경대일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제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대회의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대대회의는 4월26일 전대협을 중심으로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1회 국민연합을 주축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대대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면 현 정권의 노골적인 공안통제에서 다소 위축되었던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반노전선’으로 일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명칭이 민주정부수립을 구호해 시킨 것으로 바뀐 것이 가지는 의미는.

▲현재까지 투쟁은 수서비리 사건, 폐쇄유출등 현 정권이 가진 자들만의 정권이라는 전국민적 인식공유에서 제기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제는 이러한 분노를 조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은 바로 국민이 원하고 주인되는 참된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내고 투쟁의 성과물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즉 현재의 투쟁은 결코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는 내용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민족세력들의 단결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민주대

연합의 실질적 모태로서 대대회의는 그 지위를 보장받고 이후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정권의 유서조작사건을 밝히며 해체와 반민주 악법 철폐를 구체적 성과물로 안이하고 이를 기반으로 92. 3년 대대투쟁에 현정권의 재집권을 막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권의 대대회의 지도부에 대한 사전규속영장 발부, 김기철씨 유서조작사건을 밝히며 한 이데올로기 공세, 광주권장수씨 폭력사건등의 강경대응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은.

▲현 정권의 강경대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들의 최후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파쇼·군사·공안정권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즉 원래 군인들이란 대적관계를 유지하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후 대대회의의 투쟁방향 및 일정과 전망은

▲현재 대대회의의 투쟁방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들의 최후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파쇼·군사·공안정권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즉 원래 군인들이란 대적관계를 유지하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후 대대회의의 투쟁방향 및 일정과 전망은

▲현재 대대회의의 투쟁방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들의 최후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파쇼·군사·공안정권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즉 원래 군인들이란 대적관계를 유지하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투쟁은 87년 6월항쟁에서 볼 수 없었던 절적항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대회의는 실질적 지도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대회의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민주세력들을 결집 ‘대대회의’의 형태를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 지도력을 확보하여 지역에 맞춘 근거지 투쟁을 벌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 일정으로는 23일 시국대토론회를 통하여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대대회의의 이후 전망은 민주대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올바른 투쟁방향을 정립하며 25일 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다시금 내각사퇴등 개량적 조치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노정권에 대한 힘의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